

안방극장 "캔디女" 뜬다

"태양을 삼켜라" 성유리, "스타일" 이지아 등 고난 곳곳이 이겨내며 시청자에 "희망 전달"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건너간 후에도 세탁소 일을 소화하는 등 힘든 역경속에서도 공연기획자의 꿈을 키워나간다.

찬란한 유산에 이어 지난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주말 드라마 "스타일"에서 이지아도 역적녀의 모습을 선보인다.

스타일에서 이지아는 극중 잡지사 "스타일"의 1년차 어시스턴트로 어리바리하지만 "무대포"스런 모습을 가진 사회 초년생 이서정을 맡았다.

이서정은 실수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특유의 긍정성을 가진 유쾌한 모습을 선보이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MBC "선덕여왕"에서도 덕만역의 이요원 역시 역적녀 캐릭터다.

덕만은 남자화랑들 속에서 고된 훈련을 견뎌내며 웃음을 잃지 않고 미실(고현정)의 음모와 난관을 뚫고 곳곳이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다.

이에 방송관계자는 "자기주장이 확실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사회현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최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준다"고 말했다.

최근 "캔디형" 역적녀 여주인공들이 뜨고 있다.

"내조의 여왕"의 김남주, "시티홀"의 김선아, 47.1%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찬란한 유산"의 한효주 등 각각의 목표를 향해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한 역적스러운 캐릭터를 선보이며 인기를 모았다.

이 뒤를 이어 수목극 1위를 달리

고 있는 SBS "태양을 삼켜라"에서도 성유리(사진)가 "캔디"의 계보를 잇고 있다.

집안이 망한 후 홀로 된 수현은 음악대학원을 다니면서 전공인 첼로로 과외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물론이고, 카페에서는 피아노 연주를, 그리고 동대문 옷 모뎀로 활동하는 역적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눈길을 모았다.

"드라마 연인" 실제 커플로... 현빈-송혜교 열애 공개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끝난후 친해져... 2개월째 만남"

배우 현빈과 송혜교가 열애 중인 것으로 밝혀져 톱스타 커플 탄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빈과 송혜교는 2008년 방영된 KBS 2TV "그들이 사는 세상"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고,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해 2개월째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들은 방송사 선후배 PD이자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실제 연인 같은 모습으로 화제를 모았다.

5일 오전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현빈이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촬영으로 부산에 내려간 후에도 둘은 서로 전화를 주고 받으며 애뜻함을 나눴고, 6월 초 짝을 내 올랐던 현빈이 송혜교와 현빈은 주로 청담동 일대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으며 한

강 등 자동차 데이트도 즐겼다고. 열애설에 이들의 소속사 측은 부인하지 않고 있어 연예계 새로운 커플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현빈 소속사는 "그들이 사는 세상"가 끝난 후 연락을 서로 주고 받다가 친해지게 됐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귀지는 얼마 안 된다"며 교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현빈은 얼마전 인터뷰에서 "난 애교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둘'같은 스타일도 아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헌신적인 스타일"이라고 밝히며 "센스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비, 할리우드판 "용쟁호투" 주인공 유력



월드스타 비가 할리우드판 "용쟁호투"의 주인공이 유력시되고 있다. 비의 소속사 측은 6일 "워너브라더스측에서", "어웨이큰 더 드레곤"의 주인공 중 한명인 수도승 역할로 제의를 받았다. 현재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생은 한판 놀이... 쉬운 예술로 대중과 소통"

전시회서 '장례식 퍼포먼스'... 영원한 자유인 조영남씨 "재산 1/4은 내 옆 여자에"... 유서 대독에 관객들 폭소

"나는 원단 이거주의자였다. 타인으로 부터 추모를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내 시체를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 즉시 담요나 이불에 둘둘 말아 골장 화장터로 가서 태워라. (...) 내 인생은 한판 놀이였다. 재미있게 잘 놀다간다." (조영남의 유서 중)

가수이자 화가 조영남(사진)이 최근 '장례식'을 치렀다. 서울 정담동 C·T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요셉 보이스와 영남 보이스'에서 이미 고인이 된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를 만나기 위해 가상 장례식을 진행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다.

관 속에 그가 들어간 채 다른 사람이 유서를 대독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유서는 웃음마저 자아냈다. "재산의 4분의 1은 죽을 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갖되, 다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 취소한다"는 구절에서 관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쉬운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 안에서는 높낮이도, 남녀도, 나이도 없습니다. 틀 안에 갇힌 생각을 깨고, 누구나 노래를 잘하면 가수가 될 수 있고 가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달라진 시대를 제가 증명하고 싶어요.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봐도 상관없어요."

조영남의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소재는 화투를 비롯해 트럼프 카드, 바둑판과 바둑알, 요강, 소쿠리, 주판 등이다. 모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사물이다. '종아서 화투를 치지만 그것을 그려 벽에다 붙일 정도는 아니다'는 통념을 깨고 사람들을 즐거움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다.

그의 화투 그림은 현대 미술의 신흥 시장인 중국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조영남은 이번 전시가 끝난 뒤 다음달 25일 중국 미술의 중심지인 베이징 798 예술구의 메이저급 화랑인 'SZ 센터'에서 전시를 갖는다.

서울에서 한 번 장례식을 치른 그는 이번엔 중국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짜뎡' 전시회가 되기 위한 퍼포먼스다. 그의 지인들은 기마병이 되어 그의 죽음을 지킨다. 중국의 텐안먼을 패러디해 이곳에 화투를 붙인 작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삶의 덧없음을 풍자한 것이다.

포토갤러리

물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풍경 - 김경덕 작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견 큐리어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
당신을 위해 세계를 달리는

ESI

화물 추적 시스템 픽업시간 연장 항공에서 해운까지... DOOR TO DOOR 전세계 NETWORK 구축

고객이 실시간으로 화물의 위치 및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PODA 시스템 도입, 중국지역 발송 물건에 대하여 당일 오후까지 픽업하여 익일 배송 완료 시스템 구축

항공에서 해운까지... COURIER 특송 전문에서 Air Cargo, 해상운송 업무까지 영역 확대.

DOOR TO DOOR 고객에 원하는 장소에서 픽업, 원하는 장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배송.

전세계 NETWORK 구축 홍콩, 중국, 동남아, 미주지역 등 전세계 네트워크 구축으로 WORLD WIDE 특송업체로 성장.

신속·정확·안전 **묵성항운(주) 서울 서부지사** 저비용·고효율

- ◆ 중국 전 지역 및 전 세계 화물 ◆ 항공편, 중국전지역 매일 발송
- ◆ 모든 전자제품, 의류, 소포, 서류 등 발송 가능

중국 전지역 및 전세계 신속·정확·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전화한통이면 **쏟아같이 달려갑니다.**

소중한 고객의 화물에 대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TEL : 02-2676-6866, 2637-0814 H.P : 010-4235-2588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18번지 302호 (지하철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 앞)

심 양 지 사 TEL : 024-2341-1660 M P : 133-9010-7831	연 길 지 사 M P : 138-4439-0005	할 빈 지 사 M P : 137-0364-9042	청 도 지 사 TEL : 0532-8606-9606
---	--------------------------------	--------------------------------	---------------------------------

묵성항운(주) Global Express & Logistics Co., Ltd 국제특송 해운 항공

HEAD OFFICE TEL:82-2-722-2600 FAX:82-2-722-5130 BUSAN TEL:82-53-325-2602 DAEGU TEL:82-52-523-2601

"한국을 몰라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인천출입국사무소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석한 베트남 여성 원옥음씨(27)와 원티선다오씨(37)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행사 개최

지난 6일 인천출입국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3년전 베트남에서 살다 한국으로 들어온 원티선다오씨(37·여·사진 오른쪽)는 "한국문화를 알 길이 없어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다"며 기뻐 했다. 10개월째 딸과 함께 온 원씨는 최근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둔 뒤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이날 행사장을 찾았다. 그는 "남편이 일을 쉬고 있어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이 곳에 나와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한국사회에 대해 알게 돼 참 좋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교육과 경제는 베트남보다 많이 앞서 있어 배울점이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모인 결혼이민자 80여명이 몰려평소 궁금했던 한국 출입국관리법과 문화 등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6개월전 입국해 한국말이 서툰다는 원옥음씨(27·여·사진 왼쪽)는 "아직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한국 음식도 입에 잘 맞고 생활이 재밌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외국인 부인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부터 매달 2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보다 많이 앞서 있어 배울점이 많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베트남과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모인 결혼이민자 80여명이 몰려평소 궁금했던 한국 출입국관리법과 문화 등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6개월전 입국해 한국말이 서툰다는 원옥음씨(27·여·사진 왼쪽)는 "아직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한국 음식도 입에 잘 맞고 생활이 재밌다"고 말했다. 인천출입국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외국인 부인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며 "이달부터 매달 2차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 석 동현 검사 내정

"대한민국 신국적법해설" 저서까지 펴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외부인뿐만 아니라 검사장급도 기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무부는 10일, 개방형 직원이었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차관보급)에 석동현(51·경북) 대검고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보직은 검찰총장의 모두 54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입국 업무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책 분야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검찰과 업무 협조를 할 일이 많아지게 된 데다가 최근 법 개정으로 검사장급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석동현 대검고검

차장검사(15기)를 임명하게 된 것이다.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은 부산이 고향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와 인연을 맺고 부산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대구지검, 서울지검, 서울고검 검사를 거쳐 충청지검 영동지청장, 대검 검찰연수관, 대검 공보담당관,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고검 검사, 대검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해 오다가 이번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석동현 본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으로 국적법무를 담당하던 시절부터 이중국적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다가 "대한민국 신국적법해설"이라는 저서까지 펴내면서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적 있는 외국인정책에 능통한 인재로 알려지고 있다. 석동현 본부장이 "헌국적법으로는 많은 재외국민들이 거주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 할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한국 국적 포기를 원치 않아 거주국에서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투표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 앞으로 석동현 본부장의 출입국업무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목된다. /전길운 기자

출입국관련 질의응답

초청권 및 영주권 신청 가능여부

문: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안산 반월공단 한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작년 H-2 비자에 대해서 우대정책 즉 한화사에서 2년 근무하면 초청권이 부여가 되며 (즉시 시행) 4년6개월 근무하면 (2008.12월)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니 모든 것이 아직 미결정이라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려면 4년6개월인데 그중에 등록증제도로는 3년전에 한번 본국으로 갔다와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공백시간도 다 4년6개월안에 포함이 되어있는지요? 그리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

고 영주권 신청한 후 귀국해도 영주권이 부여가 되는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답: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문취업관련 친인척 초청권과 영주권신청에 관한 답변입니다. 친인척초청초청권 대상 :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초청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국민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할 수 있음 방문취업자격 체류자는 친인척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신청건은 제조업 등에서는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자격 신청권관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문의사항은 해당출입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고등학생이 한국 고등학교에서 유학할 경우

문: 중국인 고등학교 재학생이 한국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고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으나 안내가 되어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는 유학관련 비자로 D-2, D-4 비자가 안내되어있으나 고등학생이 한국의 고등학교 재학을 위한 유학을 올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답: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중국인이 국내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부모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방문등거비자나 동반비자로 가능하며 만약 국내에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있을 경우 국내 체재경비를 부담할 능력있는 후원자가 있을 경우 연수(D-4)자격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D-4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1. 고등학교 입학허가서 2. 중국에서의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3. 재정입증 관련서류(후원자의 신원보증서, 체류경비부담확인서, 기타 예금잔고 등증 택1)을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중국에 있는 학생에게 전달하여 주중 대한민국공관에 사증을 신청 한 후 사증이 발급되면 3개월내에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法務部, 상반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수료자 304명 배출

이수자에게 국적취득 시 심사기간 단축 등 혜택

법무부가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외국적 동포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민자 304명이 지난 달 12일 처음으로 수료하였다. 이들은 상반기 교육신청자 1,277명 중 마지막 5단계 과정에 편성되어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로, 향후 국적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심사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에 반영 등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어와 한국사회의 이해 등 표준화된 교과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교육 이수자에게는 국적필기 시험을 면제하고, 국적심사 대기

기간 단축, 국적면접시험에 반영 등 국적취득 시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상반기 시범사업에는 총 모집정원 1,277명에서 2,142명이 지원하였고, 사전평가 후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과과정에 배정하여 전국 20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최종 이수자로 인정받은 304명은 최상급 단계에 편성되어 지정된 이수시간을 모두 마친 378명 중에서 지난 12일에 실시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시범사업 결과 참가신청 후 대기 중인 2천여 명과 계속 늘어나는 신규 신청자의 교육수요를 위해 교육기관 확대 운영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20개로 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을 대폭 늘리고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교육희망자의 참여를 쉽게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감사운영 체계 등을 정비하고, 전반적 시범교육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금년 9월 중 내년도 이수제 운영 방향과 시행규모 등에 관하여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하반기 교육신청자 1,25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5일 교육과정 지정을 위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교육 과정에 참여 중인 사람들과 별도로 8월중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회원들의 상호 만남의 장 마련

부산출입국, 『결혼이민자 국적별 대표 워크숍』 개최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문식)는 지난달 29일 관내 결혼이민자 국적별 대표 및 자조모임 회원들을 초청하여 『결혼이민자 국적별 대표 워크숍』 및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 중 중국인 김호영(62.11.12. 여) 등 5명의 결혼이민자들이 명예출입국관리공무원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현황에 대한 설명도 청취하였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로 이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장벽, 문화적 차이, 각종 정보의 제약 및 실질적인 고충상담의 부재 등으로 이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배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후배 결혼이민자들에게 전수하고,

또 서로의 애환을 나누는 이민자간 자조적 모임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여 국적별 7개국 10명의 대표자를 선정,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적별 자조모임 구성과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와 같은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과 병행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9년 상반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통해 나타난 자조모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 정책에 반영하고자 『결혼이민자 국적별 대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이민자 국적별 대표, 자조모임 회원 등 2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석하여 국적별 자조모임 소개, 자조모임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 발표 및 향후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www.hikorea.go.kr

재한외국인행정 · 생활종합 안내는 다국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벼룩광고 / 월 3만원 (2회)
광고문의: 02-2676-6866

[중국동포법률지원中心]
TEL: 02-839-8232(직통)

회사설립, 세무관리 전문
☎ 02-2637-0814

영등포구청역 예 산 부 동 산
☎ 02-2633-7678

法律事務所 知友 (지우) (中國專門)

대표변호사 이상용 변호사 최인애

중국인 사건 전문상담 법률사무소 '知友'

- 이혼소송: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별거, 사망 등 원인으로 이혼소송 * 합의이혼후 체류연장 하실분, 합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 * 이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 이혼소송 전문상담 가능
- 교통사고, 산재처리 최상의 합의금, 보상금을 받으시려는 분들 환영 (병원을 알선해 드리며 치료비 없이도 입원가능)
- 사기사건: 한-중무역, 교류에서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
- 기 타: 한국에 투자하고 투자비자(D-8)로 체류하고자 하는 분.

상담전화 : 02) 2039-7408 팩스 : 02) 586-990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2-1 서보빌딩 6층, 7층(교대역 9번출구 / 서초역 1번출구)

중국면허증 공증인증 대행

중국면허증 소지자
한국에서 필기시험만으로
한국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 ☎ 02-2676-6866
010-6866-0815